“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교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A Church of Disciples,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설교 Sermon

한혜진 ♥ 기성용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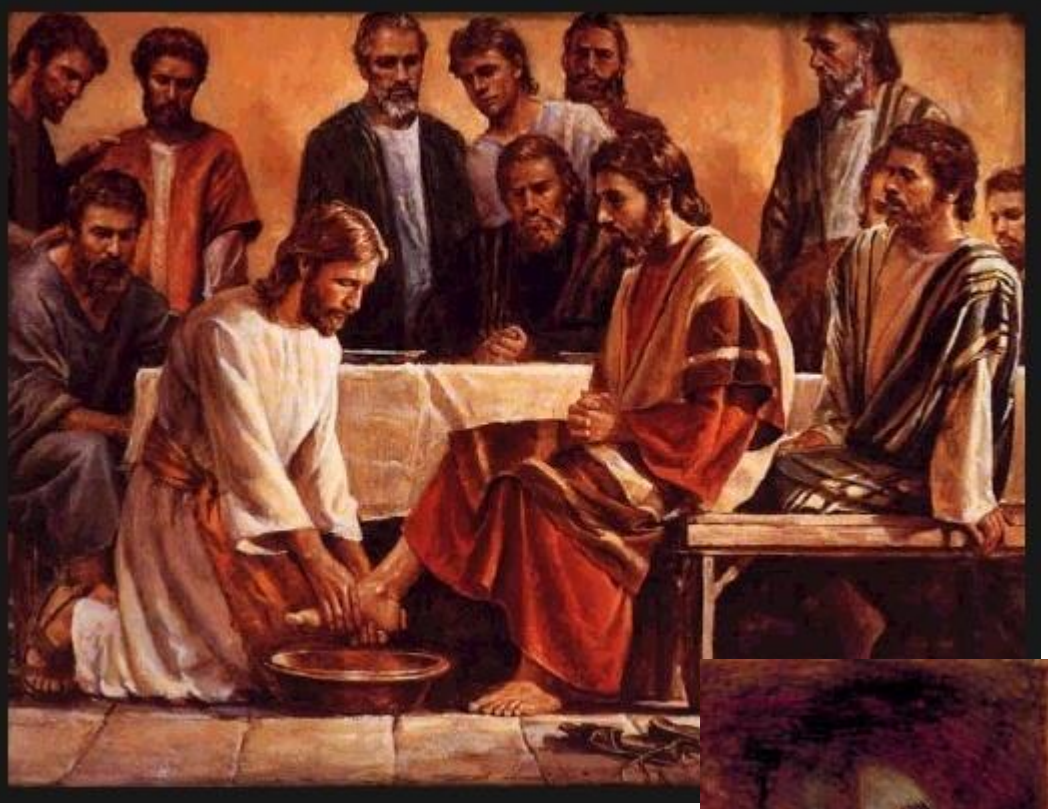
신세계뉴스통
NewWorld xinsegaenews.

발을 씻겨주신 섬김은
예수님의 구원/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다.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4)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1. 제자로 닮아가는 삶에는
고난과 모욕이 따른다



6)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9)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섬김의 환경은
종종 인간 중심적이다

36-37)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7)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2:22)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12:16)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2. 섬김의 자리로 완전히 내려가라.

12-13)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셔 비스듬히 누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3. 섬김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14) 주이며 선생인 내가,

예수님-선생님
제자들/우리들-학생

16)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예수님-주인
제자들/우리들-종, 하인

16) 보냄을 받은 사람이(종) 보낸 사람보다(예수님) 높지 않다.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12)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14:26-27)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